

공공공간 계획방향 연구*

A Direction of Planning Public Space in Specialized High School

Hee Sung Jeon^{**}, Kum Jin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Abstract

The opportunity, provided for design method and strategies of public space for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in specialized high school through the experience of three cases on high school specialized animation, design and interne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Public space is an important issue in school architecture as it seeks to revive the public area in educational building as a multi-cultural entertainment space for interchange, discussion, collaboration and relaxation during students' school lives. The latest works of school, however, which are evaluated as well as reflected the reality of educational patterns, are still deficient in that public elements in school are underdeveloped and inadequate. This paper reviews an assessment of the success in public space for the architecture of specialized high school with the space for community connected open space and concludes with the establishment of design method for the future building for specialized high school; extraction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development of public space in educational building and proposal of design direction to make a use the existing classrooms for english, music and painting and public area such as lobby, corridor, bridge and terrace; implementation of school renewal with gallery, auditorium and mediatheque including public open space with nature for the creation of identity considering both of study and community.

Key words: specialized high school, public space, community

* 이 논문은 2011년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First author. Tel. +82-32-835-4654. E-mail. hs0408@incheon.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2-835-8471 E-mail. kjinlee@incheon.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y. 11, 2014 / Revised: July. 25, 2014 / Accepted: July. 30, 20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교류와 참여, 협력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실습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교육적으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협소한 교사공간과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공간활용과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교육과정과 시대흐름의 변화에 부합되는 학교시설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취업뿐 아니라 관련 전공과 연계성을 갖거나 또는 다른 관심분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특별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톨이와 폭력 등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거나 전공과 진로에 대한 회의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포용하기 위해 학생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공공간의 현황을 시설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계획방향을 도출하여 학습과 취업 위주의 학교시설 계획방식에서 나아가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커뮤니티와 문화적 요소를 담은 학교시설 공공공간 계획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주제어: 특성화고등학교, 공공공간, 커뮤니티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전반적인 구조변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시설의 계획방향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가 확대되고 학생들 각자의 맞춤형 교과과정에 의해 학습공간을 선택하여 이동하면서 강의를 듣는 운영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학습운영체제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계획방향이 요구되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 모두를 위한 다각도의 특화된 교육시설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학습과 취업을 위한 교육시설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지적, 정서적, 문화적 시설을 계획하지는 못하였다. 학생들 모두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교과과정과 전문지식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에 제공되는 공간은 교실과 실습실 등 교과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¹⁾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교육방침이 세워져 있지만 학습기능 이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²⁾ 심심치 않게 자살소식이 들려오고 외톨

1)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지내는 일상 생활공간이다.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학습, 휴식, 체험, 교류, 놀이, 문화, 만남, 식사 등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대부분은 학습기능에만 치중되어 있다(김철근, 2010). 학교는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문화경험과 배움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장소로 변화해야 한다(박용숙, 2013).

이와 폭력 등 여러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채 심리치료와 상담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³⁾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지식 뿐 아니라 조기에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취업과 진학을 우선시해야 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⁴⁾ 전공이나 학교시스템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과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것 이외에 학생들의 교류와 참여, 협동을 배우고 자기계발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시설 계획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론과 휴식, 문화를 위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시설 계획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공공공간 계획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실업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된 이후⁶⁾ 2008년 신축된 K애니고, 비교적 최근에 건설되었음에도 교과학습과 실습, 식당 등 모든 시설을 한 개의 건축물에서 소화하는 등 다소 열악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 D디자인고, 상업계고에서 그래픽과 영상미디어 위주의 편제로 개편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된 S인터넷고 등 각 학교들의 시설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하여 공간활용과 시설운영 계획방향을 제안한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정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 2) 박영신(2012)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의 행복수준은 가정생활, 여가생활, 학교생활 순이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원만한 친구관계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 휴식 및 여가시간, 좋아하는 수업시간 등을 순위로 선택하였다. 학교생활 또는 학교시설과 관계없이 개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학교생활에서의 행복과 만족도가 높지 않은 연구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휴식 및 여가시간, 긍정적 정서, 다양한 취미활동, 학업성취 등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습 외 시간을 활용하고 학교생활에 공동의 목표를 갖는 참여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 3) 박금녀(2014)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폭력감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민경(2012)은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 적용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학교행복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프로그램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학생들 공동의 관심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마련하여 상호보완적 효과를 꾀하고자 한다.
- 4)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생활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강정희, 2010).
- 5) 성적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진로문제 대처를 위한 진로성숙개념이 중요하다.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적응 등을 고려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기초를 마련하고 학생자치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권미정, 2013).
- 6) 특정분야의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1998년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지정 운영되기 시작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전의 실업계고등학교보다 다양한 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학생배출을 목표로 한다.

위한 학교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학생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공간 계획방향을 도출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기준

우리나라 학교시설은 주로 학습과 실습시설 등 교과목 운영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왔다. 입시를 위한 학습위주의 교육에 알맞은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학교교육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여가생활, 자아실현,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설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2010년대 전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로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인문적인 연구들이 있으며, 주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논문은 학교사회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커뮤니티활성화를 통해 교류와 참여, 자기계발,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공간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내외부의 숨은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확보하여 학교생활의 질적 개선과 양적 향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분석기준은 시설현황과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문화와 참여 공간, 학습과 자기계발 공간, 정보공유와 발표 및 토론 공간, 교류와 휴게 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교사동, 실습동, 다목적동, 외부공간에서 공공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들의 공간활용과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 1> 선행연구고찰

저자/ 년도	연구내용
(2010)	학교의 문화공간 환경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총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문헌 및 조사연구를 통해 학교시설 문화공간 환경조성 방안으로 ①인식의 전환, ②예산확보, ③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
강경은 (2011)	예체능교과교실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시 공립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대안 및 방안으로서 ①예체능 전문교과교실 환경구축, ②휴식시간, 접근성을 고려한 상시 이용환경 구축, ③예체능 친화적 환경 조성, ④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
김혜민 (2012)	특성화고 전환사례 연구 - 우수특성화로 선정된 사례를 분석하여 특성화고는 양적성장을 이룬 반면, 개인의 능력, 소질을 고려하지 못함을 지적. 개선방안으로 정부 정책방향 및 차별화 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제안.
전민경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 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 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특성 강화,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 기대함.
최진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여가패턴 분석 - 울산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데이터마이닝의 순차연관성 분석, 여가패턴의 지표 사례수, 지지도, 신뢰도 산출. 활동적인 여가보다는 실내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며, 스포츠참여활동보다 취미오락활동 패턴의 비율이 높다는 결론 도출
박금녀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정동열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만족 변화유형과 변화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만족 변화유형을 구명하고, 기술 및 추리통계를 통해 분석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만족을 높이기 위한 학교 차원의 개입이 필요 및 정확한 조사대상 선정과 변인을 선정하여 패널데이터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

II. 학교시설에서의 공공공간

1. 학교시설에서의 공공공간 역할

학교시설에서의 공공공간은 학생들 공동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공의 공간’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학교시설은 교육시설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공공건축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공건축의 범주 내에서 학교건축의 공공공간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정서적 교류 및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교육적 역량과 함께 참여를 통한 성장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동시에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실 등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함께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⁷⁾

2.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공공간의 필요성

공업고 또는 상업고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실업계고등학교가 디자인, 그래픽, 애니메이션, 음악, 조리, 미용,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인문계고 학생이 특성화고에 편입하는 것이 제한될 만큼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생업을 위한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계고에 입학했던 과거와 달리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일찍 전문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취업뿐 아니라 관련 전공과 연계성을 갖거나 또는 다른 관심분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진학이나 취업에 국한되지 않고 특기와 적성 등 자기계발을 중요시하고⁸⁾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⁹⁾ 한편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 이면에 학생 자신이 선택한 학교의 전공이나 학교환경과 여건 등이 정서에 맞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7) 취업을 또는 진학을 등이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기에 이에 대한 중요도와 가치가 우선되지만, 학생들의 정서와 여가, 문화 등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과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8) 김효수(2013)의 특성화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연구에서 학생들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에 만족하였다. 고창룡(2011)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직장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체험, 재량, 특별활동 등의 진로교육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9) 최진(2013)은 학생들은 과거의 여가활동 경험이 현재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며, 취미오락, 스포츠, 휴식 등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김미옥(2003)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여가활동이 개인의 발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주로 동성친구와 함께 간이음식점과 게임방이나 오락실, 노래방, 디스코텍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음주도 포함되었다. 김은영(2010)에 따르면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취미오락활동이 대부분이다. 극장, 노래방 등 휴게시설과 놀이터, 공원, 스포츠시설, 캠프장 등 다양한 관심도가 나타났지만 대부분 충분한 여가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바람직한 여가활동 지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업과 일에서 벗어나 휴식과 자기계발을 위한 재창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가지도 및 적절한 여가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교시설은 이전의 실업계고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소요공간만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과 시대흐름의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실습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교육적으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협소한 교사공간과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공간활용과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마다 전문교과과정을 위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특별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필요하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자치적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서적, 환경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교육적 공간이 필요하다. 진학과 취업, 전문교과과정과 실습 등 전문가 교육을 위한 장소에서 나아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체험, 친구들과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등의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장소가 제공된다면 문화적, 사회적 학습을 통한 창의적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¹⁰⁾

III. 특성화고등학교의 공공공간 현황

1. 분석대상 특성화고등학교의 시설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 특성화고 중 K애니고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전공실기 능력함양 등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영상방송제작코스, 만화창작코스, 애니메이션코스 등 문화콘텐츠과를 학년별 3개 학급 총 9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애니메이션박물관과 인형극장에도 연결되는 등 전공과 연계된 부지에 입지해 있다. D디자인고는 1994년부터 건축과, 디자인과, 전자계산기과 등 총 27학급으로 운영하던 D전자공업고를 2005년 디자인고등학교로 특성화하였으며, 실내건축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과, 컴퓨터미디어디자인과 등 한 학과당 3개학급, 학년당 9개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과 전자분야를 동시에 운영하다가 특성화고 전환 이후 디자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인터넷고는 1899년 관립상공학교로 개교하여 1913년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51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S상업고로 개편하여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2000년 S인터넷고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현재 정보통신과, 웹운영과, 테크노경영과, 멀티미디어과 등 4개과 3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별 주요시설 및 외부공간 현황은 <표 2>와 같다.

10) 학교교육은 입시 위주에 매달리고 있어 학생들의 원만한 인격 형성에 필요한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창의성과 감성을 계발하여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어야 하므로 학교 문화공간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 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원하지만 문화 활동장소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학교 내 문화공간 조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김철근, 2010).

<표 2> 학교별 주요시설

		K애니고	D디자인고	S인터넷고
개요		- 애니메이션 교육에 관한 특화된 학교로 계획. 교사동, 실습동, 다목적동으로 구성 - 중정을 가운데 배치하고 교사동과 실습동, 다목적동을 이어주는 브리지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이동동선 고려 - 친환경 설계로 바람의 순환 계획, 학교 주변에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 형성	- 전자공예고등학교에서 디자인, 미디어, 미술, 영상 등 디자인분야가 특화된 학교로 전환 - 건물 한 동에서 교사동, 실습동, 다목적동 같이 운영 - 1층 좌우의 필로티 형성으로 주차공간 해결 및 실습 연계 공간으로 활용 - 학교 뒤편 녹지휴게공간 조성. 지속적인 추가 관리 및 배치	- 상업고등학교에서 그래픽, 포토샵, 멀티미디어 등이 특화된 학교로 전환, 교사동, 실습동, 다목적동 등 증축 - 운동장을 중심으로 건물이 둘러싸임. 건물 간 연결통로 계획 - 다목적동(IT관)에 역사관을 두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으로 세미나실, 창업연구실, 모바일앱개발실, 프로젝트연구실 등 구성
교사동	학습시설	일반교과실, 전용교과실(과학, 음악, 미술, 컴퓨터 등 전용학습실)	일반교과실, 전용교과실(영어전용, 제도실 등) 영상실, 음악실	일반교과실, 전용교과실(외국어,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실)
	실습시설	-	실습실(CAD, 디지털시스템, 멀티미디어컨텐츠, 디자인, 소묘 등)	과학실험실
	공용시설	전시홀, 알코브형복도, 시청각실, 작업체험실	전시홀, 쉼터, 식당, 체력단련실, 도서실, 독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여학실, 시청각실, 상담실
실습동	학습시설	-	-	음악실
	실습시설	영상사시실, 사운드제작실, 애니메이션실, 방송편집실습실, 영상편집실습실, 만화실습실	-	애니메이션실습실, 기능영재실, 전공별 컴퓨터실
	공용시설	전시홀, 상상쉼터, 테라스, 도서실, 스튜디오, 체형코너	-	전시복도, 식당, 도서관, 독서실, 자율학습실, 진로상담실
다목적동	실습시설	-	-	프로젝트연구실, 모바일앱개발실, 창업연구실
	공용시설	체육관, 식당	-	체육관, 역사관, 세미나실
외부공간		중정, 필로티, 쉼터	필로티, 휴게쉼터	휴게쉼터, 산책로

2. 분석대상 특성화고등학교의 공공공간 현황

K애니고, D디자인고, S인터넷고 학생들의 커뮤니티를 유도하여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과 이용현황은 <표 3>, <표 4>와 같다. K애니고는 교사동과 실습동, 다목적동 등 기능별로 건물을 분리하였으나 참여와 교류를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전문교과과정을 위한 실습시설과 교실이 대부분이고 학생활동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배려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작품을 실습실 전면의 복도 등 공용공간의 벽면에 전시하는 정도이고, 건축물 사이의 중정 등 녹지공간은 이동동선 기능을 할 뿐 공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D디자인고는 하나의 건축물에 모든 시설들이 집약되어 있어 일반교과실과 실습실 이외의 공공공간 조성현황은 열악한 편이다. 복도에 학습성적을 보여주는 디자인관련 전시를 하지만 학생활동과는 연결성이 부족하고 실내의 휴게공간은 테이블을 배치하는 정도에 그쳐 프로그램을 담은 공공공간 확보는 미진한 상태이다. 외부공간 중 일부는 부족한 실습공간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녹지휴게공간 이용도 저조하여 적극적인 공간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S인터넷고는 건물을 증축하면서 실습공간들은 확보하였지만 복도 일부의 전시공간과 다목적동 로비 등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활동공간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학교를 홍보하는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사를 자랑하는 상징적 역할을 할 뿐 학생들과 직접 연관된 커뮤니티공간이 되지는 못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실습동 전면 강당건물에 있는 매점을 휴게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산책로와 녹지공간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는다. 멀티미디어와 웹기반, 그래픽 등 개인적인 작업이 대부분인 학생들에게 교류와 참여, 협동을 위한 공공공간은 더욱 절실하다.

< 3> 학교별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시 설	K애니고	D디자인고	S인터넷고
습 실 습	음악실, 미술실, 영어카페	영어전용교실, 음악실	전용교과실(음악)
공 용	만화실습실, 사운드제작실	-	과학실험실, 시청각실
외 부	로비홀, 알코브형 복도, 브리지, 테라스, 도서실, 직업체험실	로비, 복도, 도서실, 영상실, 회의실, 상상홀	로비, 전시복도
	중정, 필로티	필로티, 휴게쉼터	휴게쉼터, 산책로, 야외학습장

< 4> 학교별 공간 이용현황

[illegible]

1. K애니고 공공공간 계획방향

1) 문화와 참여 공간: 실습동 로비와 건물 연결 브리지

K애니고 실습동의 로비는 다양한 색채를 입혀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학교의 일회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시형태를 변화시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학생들이 상시적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학교의 문화교육 여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접한 방송스튜디오실들과 경계 없이 오픈플랜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로비의 전시공간을 확대하여 스튜디오와 통합된 공간으로 이벤트화하고, 클레이애니메이션과 뉴스촬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코너도 인접해 있으므로 실습동의 로비층을 교내의 가장 매력적인 문화구역으로 기획 가능하다.

실습동 로비는 건물 연결 브리지를 통해 교사동과 다목적동에 이어지는데, 중정에서부터 시작된 산책로와 같은 브리지의 통로공간이 각 층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동동선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으므로 실습동 로비의 갤러리를 연장하여 문화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교사동과 실습동, 식당과 체육관을 오고가면서 만나게 되는 갤러리의 작품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브리지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교사동과 다목적동 사이의 브리지는 외부에서 조망되는 형태와 색채가 뚜렷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 또한 기대된다.

2) 학습과 여가활동, 자기계발 공간: 영어카페와 음악 미술 전용교과실

교사동의 교과교실들 사이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어카페가 운영된다. 교과교실의 경직된 정형적인 책상배치에 변화를 주어 카페와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으므로 교사동의 다른 교실들과 차별화된 공공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영어학습과 대화를 위한 자율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영어독서와 영어연극 등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베이스캠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습과 여가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복도와의 경계를 없애고 오픈플랜으로 구성하여 공공성을 부각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도록 하며, 카페 내부에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동식 파티션을 설치하여 공간에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 아울러 시청각실과 영상실 등 관련 시설들과 근접하게 배치한다면 필요시 학습용구 등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영어카페뿐 아니라 음악전용실과 미술전용실 등 교과교실을 개방하여 음악카페와 미술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교육을 특화하여 문화콘텐츠과를 운영하는 학교로서 음악과 미술에도 익숙해야 하므로 교과학습시간 외에 학생들 서로의 특기를 살려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 및 조소를 경험하는 등의 자기계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전용실이 복도 단부에 위치하므로 복도와 알코브공간으로 확대하여 열린공간을 구성하고 공연 및 발표회도 기획한다. 직업체험실과 취업지원센터가 가까이 배치되어 있어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역할이 커질

수 있으며, 아울러 음악전용실과 미술전용실을 실습동의 사운드제작실과 만화실습실에 상호협조 되도록 함께 활용하면 전공과 진로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내 여가활동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영상방송제작코스, 만화창작코스, 애니메이션코스 등 세분화되어 있는 전공영역의 경계에서 교과과정과 취미를 연계한 자기계발을 통해 각 전공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 향상시킬 수 있다.¹¹⁾ 다만 각 전용실들이 교사동과 실습동의 3층과 4층에 분리되어 있어 이동동선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보공유와 발표, 토론 공간: 도서실

실습동에 있는 도서실, 작은도서관 헤엄터는 교과교실 등 교사동의 학습공간들과 연계성 없이 독립되어 있다. 학습의 연장으로 이용되는 열람실 역할이 목적이었다면 교사동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실습동에 배치되어 있는 계획의 장점을 부각하고 학습목적을 넘어 문화 기능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단순히 오락 개념이 아니라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습결과물을 발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담은 커뮤니티 교육시설로서의 엔터테인먼트를 의미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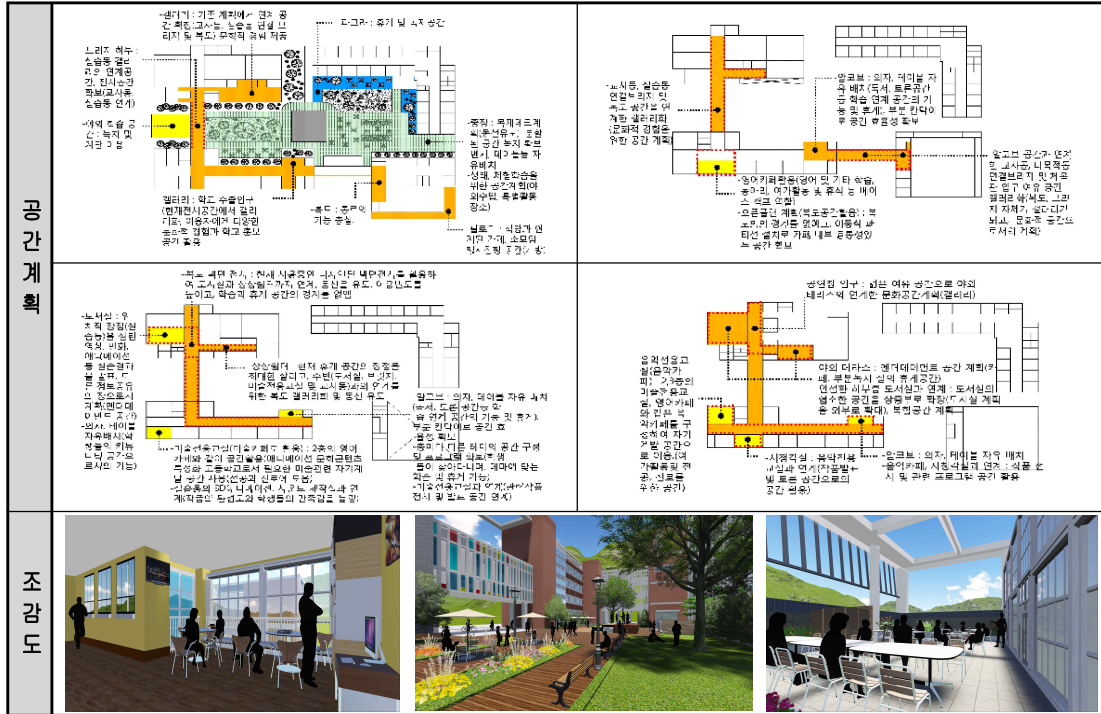
열람실과 서고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고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적 공간으로 운영하고 열람실은 활력 있는 장소로서 열람공간뿐 아니라 특기와 적성,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개최가 가능한 특별공간으로 이용한다. 책과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가구배치 역시 작은 도서관이라는 테마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부여하여 계획한다. 아울러 도서실 전면의 복도벽면에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행사 등 특별한 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사용 빈도가 낮으므로 브리지 등 공용공간의 갤러리를 연장하여 도서실 전면까지

11) 강경은(2011)은 예체능교실확충을 통한 학교 문화공간 조성방안 연구에서 학교공간이 학습기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아형성과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의 물적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이 되는 문화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예체능 교과교실의 학습공간특성을 바탕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최근 공공교육시설인 도서관의 계획방향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휴식과 여가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도서관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금진(2012) 한편 장영옥(2013)은 특성화고 도서관 활용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 확대와 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적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외부공연이나 전시, 이벤트 등을 학교로 유입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 동아리, 자율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과 연계시켜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공공시설로서의 학교는 학습 이외의 유연성을 가진 공공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와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시설의 일부인 도서관과 같이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커뮤니티와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공간으로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끌어들여 도서관에 문화공간 이미지를 접목하도록 한다.

< 5> K애니고의 공공공간 계획방향



4) 교류와 휴게 공간: 복도 알코브공간과 테라스, 중정과 필로티

교사동 복도 단부의 알코브 공간은 벤치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지만 휴식 이외의 기능이 없어 공간의 크기에 비해 효율성은 부족하다. 교과교실에 인접한 실내 휴게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 동안 편안한 휴식과 담소를 나누고 책읽기와 가벼운 토론을 하는 교류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도록 벤치와 테이블을 밀도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알코브 공간이 각 층마다 배치되어 있으므로 층별 구성에 차이를 두고 방과 후에는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토론시간을 갖는 등 공공공간 역할을 하도록 계획한다.

교사동에서 실내 알코브 공간을 이용하여 교류와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였다면, 실습동에서는 야외 테라스를 카페나 녹색을 담은 실외 휴게공간으로 계획하고 학교생활에 휴식과 여유를 주도록 한다. 크고 작은 테라스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여주도록 테라스마다 기능에 변화를 주어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 상층부에 있는 테라스는 인접 계단을 통해 도서관과 테라스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협소한 도서관공간을 상층부로 확장하고 도서관 기능을 야외의 휴게공간으로 확대하여 복합공간으로 계획한다.

자연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테라스와 도서실이 있고 옥상정원이 계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조망점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의 학습과 토론, 이벤트와 휴식 등이 공존하는 교류와 참여를 위한 장소로 적합하다. 가능하다면 직접 연결되는 부분계단을 설치하여 공간연결을 꾀하도록 한다.

건물 외부공간으로는 교사동과 실습동, 다목적동 등 건물들로 둘러싸인 중정과 다목적동 주변의 필로티 하부를 이용한다. 자연과 맞닿아 있는 중정은 자연친화적으로 바람길을 형성하고 넓은 공간을 창출했지만 건물들을 연결하는 동선체계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보이는 바닥을 목재데크로 계획하여 동선을 명확히 유도하고 비효율적인 일부 칸막이벽을 제거하고 벤치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중정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생태학습, 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정서에 효과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빈도를 높이도록 하며 야외수업과 특별활동 장소로도 활용한다. 식당과 체육관이 배치된 다목적동의 필로티 하부에는 넓은 여윌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식당과 연계된 카페공간을 마련하거나 주말과 방학 등 특정기간에 학생들의 소모임과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동적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 비해 활동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외부공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보다 활력 있는 장소로 구성하도록 한다.

2. D디자인고 공공공간 계획방향

1) 문화와 참여 공간: 교사동의 실습실구역 복도

D디자인고의 교사동은 교과교실과 실습실, 체육관, 식당 등이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모두 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학습 및 실습교실이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용공간이 여유 있게 계획되지 않아 문화를 담을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생들의 동선이 교차되는 복도의 기능을 부각하여 갤러리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일반 학교들보다 복도폭이 넓게 계획되어 전시공간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서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복도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건축디자인실, 멀티미디어실 등 실습실들이 집약되어 있는 1층의 동측 복도를 이용하여 소묘, 영상, 시각디자인, 건축디자인 등 학생들의 작품을 주기적으로 전시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경험의 장소를 제공하고 가치관의 성장을 꾀하는 참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출입구에서의 접근성도 좋아 실습실들로 이루어진 문화구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시각적 문화기능을 살린 벽면 전시를 통해 문화와 함께 하는 일상의 학교생활을 공감하는 기회가 된다.¹³⁾

2) 학습과 여가활동, 자기계발 공간: 컴퓨터와 영어전용교실

13) 경기국제통상고에서는 출입구와 복도를 이용한 학교 공간의 효율적 개선 방안으로 문화공간으로의 갤러리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학교 복도가 아름다운 공간으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학생들은 미적 반응과 감수성을 발전시켜 시각문화를 보고 느끼게 된다(박용숙, 2013).

3층의 체육관에 인접한 컴퓨터는 체육관의 부속공간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다. 휴게공간으로 계획되었지만 교과교실이나 실습실과는 거리가 있어 쉬는 시간동안 이용되기도 어려워 적절한 공간활용 계획이 필요하다. 컴퓨터는 휴식기능을 확대하여 맞은편 영어전용교실과 연계된 자유로운 학습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영어학습은 소리내어 말하기를 위한 열린 장소가 필요하지만 일반교과교실 이외에는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정 목적이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망 좋은 컴퓨터에서 휴식과 동시에 영어능력향상과 자기계발 기회를 갖도록 한다.

영어전용교실 역시 학습시설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자주 찾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컴퓨터와 영어전용교실 사이의 실내디자인실습실 공간을 모두 개방하면 3층의 동측부분 전체를 여가와 자기계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1층 음악실과 서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한다. 음악실이 3층 실내디자인실습실 위치로 옮겨오면 발표회 등 행사가 있을 시에 영어전용교실을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여가활동의 일부로 음악실 사용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소음에 대한 우려도 감소한다. 또한 1층 동측부분은 음악실을 제외하고 모두 실습실로 구성되었으므로, 음악실 대신 실내디자인실습실이 배치되면 디자인관련 실습실들만의 구역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고 앞서 제안한 복도를 갤러리화 하려는 의도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D디자인고에는 전공실습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전공교과실이 없으므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과 자기계발 공간을 기존의 공간배치를 새롭게 조닝하여 학교 생활에 편리성을 주고, 숨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어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보공유와 발표, 토론 공간: 도서실과 독서실, 상상홀과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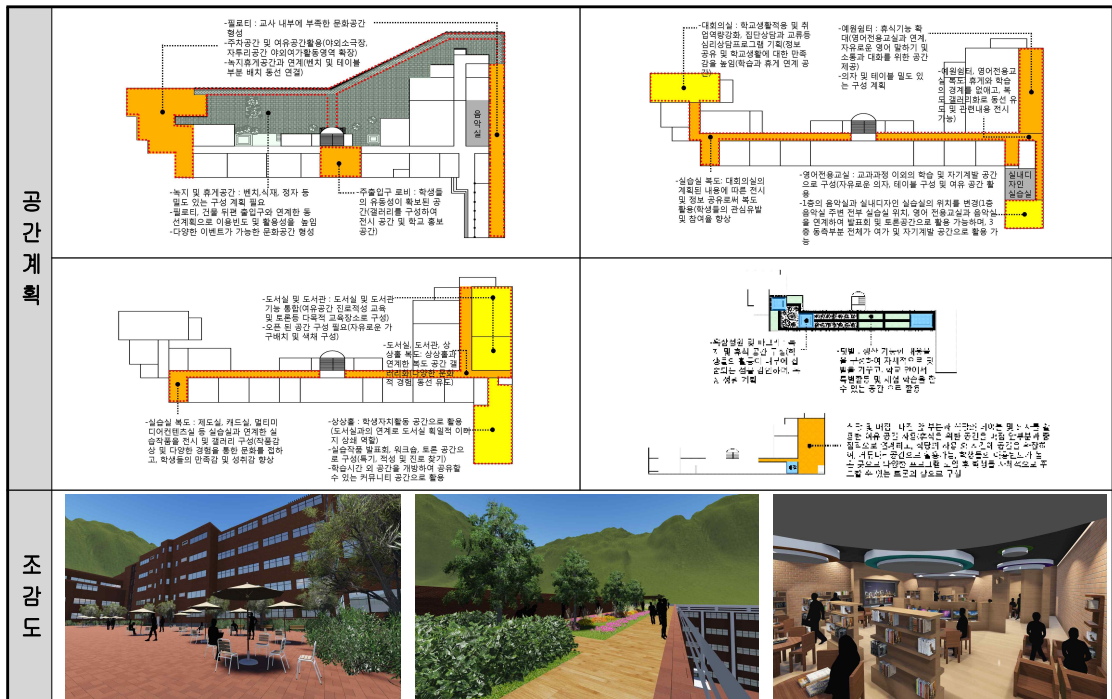
2층의 동측에는 서고와 열람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도서실과 1인용 칸막이책상들이 배치되어 있는 독서실이 구분되어 있다. 공공공간이 거의 조성되지 못한 D디자인고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도서실과 독서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서실과 독서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공간은 진로적성교육 및 토론 등 다목적 교육시설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디자인을 교육하는 학교로서 학습 위주의 답답한 공간보다는 가구배치와 색채 등 도서실공간을 아름답게 특화하는 것이 요구되며,¹⁴⁾ 또한 1층 동측 실습영역의 복도를 갤러리로 조성한 것 같이 동일 위치에 있는 이 복도 역시 연속된 벽면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여 교육과 문화를 동시에 담은 독립된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학교 도서실의 획일적인 이미지는 도서실 건너편의 상상홀을 학생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상쇄시킬 수 있다. 주로 학생들의 휴게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지만, 실습작품 발표회나 자체워크숍 등을 통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발표와 토론 공간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방과 후나 주말에는 도서실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영상물 상영 등 더불어

14)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의 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도되었다. 문화적 관점에서 추진된 일련의 사업들은 학교 공간의 획일화와 낙후함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과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절실함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박용숙, 2013).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실습작품 발표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대모산이 바라보이는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교육과 휴식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3층 대회의실 역시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상담실과 근접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적응, 취업역량강화, 전공의 이해와 적성, 집단상담과 교류 등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교생활의 행복과 미래비전에 일조하도록 한다.

< 6> D디자인고의 공공공간 계획방향



4) 교류와 휴게 공간: 녹지 필로티와 옥상정원

D디자인고 학생들의 동선 패턴은 주로 학교 안에서 머무르고 모든 생활이 건물 내부의 교과교실과 실습실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에 접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코니나 테라스 등 교실에 인접한 여윌공간이 없으므로 옥상정원을 계획하여 지상층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연친화적인 체험과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의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접근성 및 경관성 확보한다. 학생들의 안전성을 위해 추락 방지를 고려하고, 옥상녹화로 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여 단조로운 학교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고 소음저감과 에너지절약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교사 뒤편의 녹지공간에는 벤치와 식재, 정자 등 녹지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용이 저조하므로 건물 양쪽에 형성된 필로티공간과 연계하여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교사의 진출입구가

필로티의 전후면으로 모두 열려있고 교사 뒤편의 녹지휴게공간과도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다. 필로티 공간은 현재 협소한 실습공간을 보충하여 야외실습실로 사용하거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교사 내부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보완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작품전시를 기획하면 필로티와 녹지공간을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천장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필로티공간은 계절에 따라 영상물을 상영하는 야외소극장으로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컴퓨터게임, 노래방 등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여가생활에서 탈피하도록 버려진 공간들을 휴게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한다. 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운동장 또한 사용이 저조한 환경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주로 머물러 있는 공간과 근접한 거리에 휴게공간을 배치하고 학생들을 외부공간으로 유도한다.

3. S인터넷고 공공공간 계획방향

1) 문화와 참여 공간: 교사동과 실습동의 복도와 다목적동 역사관

S인터넷고는 기존의 건물에 필요한 시설들을 증축하면서 학습과 실습실 위주로 계획되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학교건물은 여전히 예전의 낡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고 문화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간 창출이 어려운 공간 구조상 학교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복도를 이용하여 학습과 생활, 문화공간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보도록 한다. 교사동과 실습동의 복도는 협소하고 층고가 낮으며 벽면 갈라짐과 페인트가 벗겨진 곳 등 전시대로서 다소 열악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이 이슈화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낡은 구조체를 숨기거나 또는 오히려 작품의 일부로 드러내는 등의 인테리어수단으로 활용해보도록 한다. 다른 학교에서 공용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달리 기존 벽면에 간단한 인테리어를 부가하여 갤러리를 구성해가는 과정은 오히려 교육적 문화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목적동에 학교의 역사를 홍보하고자 마련된 역사관은 학생들의 일상과 함께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학교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로 독자적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내부공간에 파티션을 설치하여 가변공간을 만들고 IT관에서 창업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교대로 전시하면 좀 더 활력 있는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갤러리로서 미술전시회를 기획하고 연극실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과도 연결하여 실습성과 발표와 문화행사를 접목한 장소로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2) 학습과 여가활동, 자기계발 공간: 다목적동의 IT관

다목적동에는 모바일앱개발실, 프로젝트연구실, 학생창업연구실 등 IT에 기반한 실습실들이 배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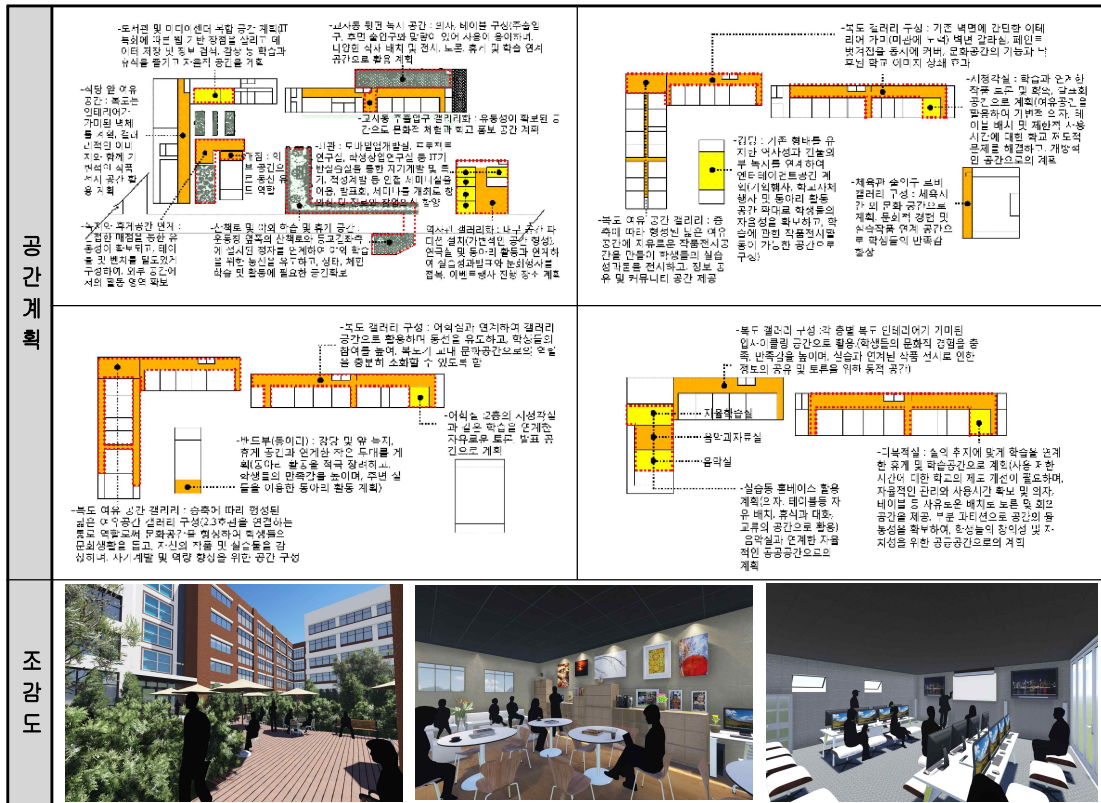
어 있다. IT관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 건물의 주 기능으로서 각 실습실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여가시간의 취미생활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동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실습실에서는 전공교육을 받고 독립된 분관으로 분리된 다목적동의 연구실과 개발실에서는 공동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습과 취미를 동시에 지원받는 장소로 IT관을 활용한다. 교육의 연장으로 또 사회로 진출하는 첫 단계로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진로계획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인접한 세미나실을 이용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치있게 활용하도록 하고, 강당의 영상교육관에서 정기적으로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강연회를 여는 등 분야별 전공적응과 창업의식을 심어준다. 역사관과 연극실 등의 문화공간과 자기계발 공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다목적동은 교과교실과 실습실로부터 분리된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정보공유와 발표, 토론 공간: 도서실과 독서실, 어학실과 다목적실

실습동 지상층에 도서관과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이용되는 도서관과 칸막이 책상으로 구성된 독서실 모두 학습환경으로서의 좋지 않은 편이다. IT가 특화된 학교로서 웹기반의 장점을 살려서 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접목한 디지털도서관으로 재구성하도록 한다. 도서실의 서고기능은 소장된 책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미디어를 감상하는 장소로 구성하고, 독서실의 열람기능은 간헐 공간에서 학습에 열중하는 독서실 이미지에서 벗어나 책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휴식을 취하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교류하며 즐기는 도서실을 제공하여 IT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도서실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한다.¹⁵⁾

15) 도서관의 모든 디지털컨텐츠를 소장할 수 있는 미디어테크로서의 도서관계획의 가능성을 추구한 센다이미디어테크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교류하며 즐기는 공간으로서, 미디어의 보관창고로 하나의 칩 속에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연속적이고 유동하는 정보의 동적교환체계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사용목적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이금진, 2012).

< 7> S인터넷고의 공공공간 계획방향



4) 교류와 휴게 공간: 자율학습실과 음악실, 녹지와 산책로

S인터넷고는 도서실과 독서실뿐 아니라 실습동 최상층에 자율학습실이 있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으므로 인접한 음악실 및 음악자료실과 함께 휴게공간으로 이용한다.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실습 후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실습실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음악실을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즐기는 힐링공간으로 계획한다. 자율학습실은 소파와 벤치, 테이블을 적절하게 배치한 실습동의 홈페이지스로서 휴식과 대화,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음악실은 음악감상실 기능을 보완하여 학교생활의 맛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활동이 빈번한 외부공간은 강당의 매점 주변이다. 교사동과 실습동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간단한 음료 등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적합하여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 자연을 담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있지만 학생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건물 내부와 주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교사동 뒤편의 야외공간과 산책로를 건물 출입구와 연계하여 건물에서 야외 산책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운동장 주변의 정자를 야외학습과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 녹지축을 건물에서 외부공간에 향하도록

형성하여 벽으로 가려진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학생들 간의 교류와 참여, 협력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성화고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실습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교육적으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협소한 교사공간과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공간활용과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시설적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시대흐름의 변화에 부합되는 공공공간 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공공공간의 현황을 시설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화와 참여 공간, 학습과 자기계발 공간, 정보공유와 발표 및 토론 공간, 교류와 휴게 공간을 기준으로 공공공간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학습과 취업 위주의 학교시설 계획방식에서 나아가 커뮤니티와 문화적 요소를 담은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공공공간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를 담은 학생들의 참여 공간으로는 교사동과 실습동의 로비, 복도, 브리지 등을 활용한다. 동선이 가장 빈번하게 교차되는 공용공간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계획하여 상시적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갤러리의 다양한 작품들은 창의성과 감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의 문화적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학습 및 실습실이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과 전공에 연계하여 학습, 생활, 문화공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문화와 함께 생활하는 일상의 학교 생활이 지속될 것이다. 때로는 학교의 낡은 구조체를 갤러리 작품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기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전시공간의 실내외 공간과 형태, 색채를 다채롭게 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아름다운 학교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학습과 여가활동을 위한 자기계발 공간으로는 영어, 음악, 미술, IT 등 전용교실을 활용한다. 본래의 공간 목적에서 나아가 학습과 여가활동이 공존하는 자기계발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영어, 악기, 소묘, 모바일앱 개발 등 학생들 서로 간에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면서 특기와 적성을 찾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과 취미생활을 연계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각 전공과 여가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용교실들이 복도나 로비, 휴게 공간에 인접해 있다면 공용공간과의 경계를 융통성 있게 오픈하여 공연 및 발표회를 기획하고, 인접한 세미나실이나 다목적실, 영상실에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강연회를 여는 등 공동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학습과 취미를 동시에 지원받는 장소로 전용교실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공간 배치를 새롭게 조닝하고 숨은 공간들을 적합한 용도의 공공공간으로 운영한다. 전공과 진로, 자기계발이 여가생활과 함께 운영되는 가운데 전용교실은 진정한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와 발표, 토론 공간으로는 도서관을 활용한다. 각 학교들의 특성화 전공과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습목적을 넘어 미디어센터 및 문화센터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확대한 도서관을 계획한다. 열람실과 서고 또는 도서관과 독서실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각 공간의 기능을 차별화하여 정보검색과 개인적인 학습공간뿐 아니라 책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휴식을 취하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교육, 정보탐색,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복합화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책과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형적인 도서관 책상배치에 변화를 주어 차별화된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영상물 상영 등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도서관에 인접한 공용공간에는 갤러리 전시공간을 연장하여 도서관에 문화공간 이미지를 접목하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휴게공간 및 마당 등에 연계하여 유연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교류와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은 복도의 알코브공간과 음악실 등 실내공간과 테라스, 중정, 필로티 등 외부공간을 활용한다. 복도의 알코브공간같이 여유있는 공용공간과 잘 사용하지 않는 전용교실은 소파와 벤치, 테이블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 동안 편안한 휴식과 담소를 나누는 힐링공간으로 계획한다. 조망점이 좋은 실습실이나 도서관 근처에는 녹색을 담은 야외 테라스를 계획하여 학습과 토론, 이벤트와 휴식 등이 공존하는 교류와 참여공간을 조성한다. 학생들의 생활이 건물 내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 외부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생태학습과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야외수업과 특별활동 장소로도 활용한다. 필로티 하부는 교내 문화공간을 보완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작품전시를 기획하면 필로티와 녹지공간을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당과 연계된 카페를 마련하거나 주말과 방학 등 특정기간에 학생들의 소모임과 영상물을 상영하는 야외소극장 등 활동적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와 같이 연구에서 제안한 특성화고 공공공간 계획방향을 발현하여 공간계획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향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특성화고 사례를 통해 적용요소를 도출하고 적응성을 검토하여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요소별 세부사항들의 적용원칙과 규제 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와 연계하여 사회인문학적 시각과 건축학적 시각이 융합된 학교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문화를 활성화하여 학교생활 적응, 자아실현, 외톨이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하는 학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정은. 2011. 예체능교과교실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창룡. 2011.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직장예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공업교육학회.
- 권미정.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덕기. 2012.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 사례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 2003. 고등학생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용 실태와 여가활성화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2010. 청소년 여가활동 실태 및 평생교육 요구조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철근. 2010. 학교의 문화공간 환경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중학교 시설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택. 2008.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 2012. 특성화고 전환사례 연구: 우수특성화 선정 고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수. 2013. 특성화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 류호섭. 1999.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건축의 다기능·복합화. 교육과학기술부 디지털도서관.
- 박금녀. 2014.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폭력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 박용숙. 2013. 학교 실내공간디자인 개선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진. 2009. 문화, 엔터테인먼트, 자연이미지를 통한 학교아이덴티티 구축. 대한건축학회지. 53(7): 45-48.
- 장영옥.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도서관 활용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민경.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 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렬.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만족 변화유형과 변화 예측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차주영. 2009.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최진.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여가패턴 분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희성: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중에 있으며, 학교건축, 건축설계, 위터프론트 건축이 주요 관심분야이다(hs0408@incheon.ac.kr).

이금진: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운동체계에 의한 건축공간의 연출구조, 2002년 8월), 런던 대학교(UCL)에서 도시계획전공 post doc.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축문화, 건축사회, 지역커뮤니티, 공공성, 향만수변도시 활성화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향만수 변도시의 공공디자인 계획방향 연구(2013)” “중등학교 시설에서의 커뮤니티공간 연구(2012)”, “운동성개념을 통해

본 수변문화공간 디자인특성(2009)” 등이 있다(kjinlee@incheon.ac.kr).